2023.4.30. 새은혜강단

# 살피시는 하나님(시편139:1-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은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이가 설치되어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 사건들도 CCTV를 통해 범인들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지키시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 1. 사람의 영혼 : 여호와의 등불(잠20:27)

*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과 달리 영혼을 심어주셨습니다. 잠언20: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은 사람 속에 여호와의 등불, 즉 환한 빛을 넣어 주었기에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생각, 육신, 세포, 문제 등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 (1) 등불이 꺼진 사람 : 불신자(엡2:1)

* 엡2: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 (2) 등불이 환한 사람 : 신자(요1:9-12)

* 요1:9-12,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9)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10)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12)

### (3) 등불이 꺼지기 직전의 사람 : 종교생활(행8:30-31)

* 행8:30-31,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들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30)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31)

## 2. 살피시는 하나님

### (1) 살피시는 하나님

① 나(시139:1-4),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1)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2)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3)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4)

② 교회(계1:20, 계2:1),

* 계1: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 계2:1,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③ 모든 사람(시33:13-15),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13)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14)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15)

**⑵ 살피는 일(보살핌, 관심)**

① 교회, 목회자(행20:28, 롬16:23)

* 행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 롬16: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② 집, 가정(딤전3:4-5),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4)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5)

③ 약한 성도, 아이들(고전12:20-26),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20)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21)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22)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23)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24)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25)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26)

**결론〉 금주의 미션**

⑴ 영혼의 등불이 꺼진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⑵ 살피시는 하나님을 실제 의식하십니까?

⑶ 어느 부분을 실제 살펴보겠습니까?